

# 여타 조건과 언어의 공모성

김의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전자텍스트연구소)

kolingua@dreamwiz.com

## Abstract

There have been some notes on the functional unity of rules or conspiracy in Linguistics. In this paper, I show that so-called 'elsewhere condition', first mentioned in phonology, is observed not only in phonology, but also in morphology, syntax, semantics, and pragmatics. And I argue that it is a kind of functional unity of rules or conspiracy in cross-component of linguistic theories. How to handle this in the macro-scope view of linguistics is another major issue in further research.

### 1. 규칙의 기능적 단일성 혹은 공모성

여러 개의 규칙을 하나의 식형으로 축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표기규약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규칙들에 분명한 "구조상의 유사점"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 (1) a.  $\emptyset \rightarrow V / C \_ C\#$   
b.  $\emptyset \rightarrow V / C \_ CC$   
(2)  $\emptyset \rightarrow V / C \_ C \left\{ \begin{array}{l} \# \\ C \end{array} \right\}$

그러나 Kisseberth(1970)는 이러한 구조적인 유사성에 의한 규칙들의 축약 외에도 규칙들이 가지는 "기능상의 유사성"도 포착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3)에서 보인 Yawelmani어의 음운규칙들은 모두 (4)와 같은 자음의 결합을 막는 기능상의 공통성을 보유하고 있다.

- (3) a.  $\left[ \begin{array}{l} V \\ -long \end{array} \right] \rightarrow \emptyset / VC \_ CV$   
b.  $V \rightarrow \emptyset / V+C \_ \# ]_v$   
c.  $\emptyset \rightarrow V / C \_ C \left\{ \begin{array}{l} \# \\ C \end{array} \right\}$   
d.  $C \rightarrow \emptyset / CC+ \_$   
e.  $C \rightarrow \emptyset / C+ \_ C$

- (4) a. \* #CC
- b. \* CC#
- c. \* CCC

즉, (3)에 열거된 5개의 규칙들은 외형적으로(구조상으로) 모양이 다르나, (4)와 같은 자음의 결합을 막는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공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Kisseberth(1970)은 (3)에 보인 개개의 규칙들에서 공통되는 정보, 즉 세 자음의 결합을 산출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잉여적인 정보를 개개의 규칙에서 독립시켜 표시하고 개별적인 규칙에는 그 각각에 특유한 정보만을 남겨 두자는 제안을 하였다.<sup>1</sup>

이와 같이 둘 이상의 규칙이 그 구조기술(Structural Description)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음운) 현상을 지향할 때, 이들 규칙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능적 동일성(functional unity)을 공모라고 한다.(조성식, 1990:261)

지금까지 살펴본 공모성은 하나의 문법 부문(즉, 음운부) 내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러 문법 부문에 걸쳐서도 또다른 공모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러한 공모성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며 이것이 언어학의 기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때 필자가 관심을 갖는 공모성은 음운론에서 일컬어 온 "여타조건(Elsewhere Condition)"인데, 이는 음운론에서만 아니라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의 전 영역에서 두루 관찰된다.

## 2. 언어의 제부문과 여타조건

### 2.1 음운론과 여타조건

영어의 동사에서 최후의 음절이 이완모음(lax vowel)인 것과 많아야 한 개의 자음으로 끝나는 것(예: édit, cóvet, devélop 등)은 음운규칙 (6)에 의해 주장세가 부여되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규칙 (7)이 적용되어 주장세가 결정된다.

1 이때 공통되는 잉여적인 정보는 도출제약(derivational constraint)을 통해 구현해 주고 나머지 개별적인 특이성은 개별규칙의 소관으로 삼는다. 예컨대, (4)는 Yawelmani어의 음운부에 존재하는 도출제약의 하나이며 그에 따라 (3a, b)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기술된다.

- (5) a.  $\left[ \begin{array}{c} V \\ -\text{long} \end{array} \right] \rightarrow \emptyset / C \_ C$
- b.  $V \rightarrow \emptyset / C \_ \# ]_v$

(3a, b)에서는 모음의 표시가 공히 빠졌는데, 그것은 (4)에 의해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만일 규칙 (5a)가 "CC \_ C"와 같은 환경에서 적용된다면 그 결과는 CCC를 산출하게 되며 이는 (4c)에 의해 차단되는 것이다. -전상범(1980) 참조.

- (6)  $V \rightarrow [1\text{stress}] / \_C_0VC_0^1\#$
- (7)  $V \rightarrow [1\text{stress}] / \_C_0\#$
- (8)  $V \rightarrow [1\text{stress}] / \_C_0(VC_0^1)\#$

이러한 관찰은 이미 Chomsky & Halle(1968)의 SPE에서도 행해진 바 있는데, 그들은 (6)과 (7)의 관계를 (8)과 같이 괄호를 사용하여 "이접적 순서(disjunctive ordering)"라는 개념으로 기술한 바 있다.<sup>2</sup>

이에 대해 Kiparsky(1973:94)는 이접적 순서를 구성하는 두 규칙은 사실상 "일반/특수 관계"에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조건으로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 *Elsewhere condition:*

Two adjacent rules of the form

$A \rightarrow B / P \_ Q$

$C \rightarrow D / R \_ S$

are disjunctive ordered if and only if:

- (a) the set of strings that fit *PAQ* is a subset of the strings that fit *RCS*, and
- (b)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two rules are either identical or incompatible

이는, (9)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두 개의 규칙 가운데 더욱 특수한 (즉, 정해 놓은 것이 더욱 많은) 것이 먼저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 한해서 더욱 일반적인 것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의 주장세 규칙인 (6)과 (7) 가운데 (6)이 (7)보다 더욱 특수한 규칙이기 때문에 (6)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6)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경우에만 (7)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Kiparsky(1973)의 여타조건이 말해 주고 있는 바는 '특수 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특수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여타의 경우'에 한해서 '일반 규칙'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이는 보다 제한적인 규칙이 보다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 우선권을 지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김진형, 1996:1015)

이러한 여타조건은 음운규칙이 이접적으로 순서매김되었을 경우의 조건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괄호를 사용하여 이접적 순서를 구명하려고 한 SPE의 설명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sup>3</sup>

2 예컨대, X(Y)Z는 XYZ와 XZ를 묶어서 나타낸 형태인데, 소괄호로 표기한 경우 XYZ와 XZ는 이접적 순서를 이룬다. 이렇게 이접적 순서를 이룰 경우 소괄호 부분을 포함하는 규칙이 적용되면, 그 부분을 제외한 규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후자는 전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Chomsky & Halle(1968) / 조성식(1990:255) 참조.

3 즉, Kiparsky(1973:95)는 괄호인 ( )나 < >로 간추릴 수 있는 경우에도 이접적 순서를 가정할 수 없는 경우와, ( )나 < >로 간추려지지 않더라도 이접적 순서를 가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음을 논의하며

## 2.2 형태론과 여타조건

어떤 어휘항목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어휘항목이 출현하지 않는 것을 저지 현상(blocking)이라고 일컫는다.(Aronoff, 1976:43) 예컨대, cattle이나 people은 그 자체가 이미 복수형으로서 또 다시 이들 단어에 복수 어미가 첨가된 \*cattles와 \*peoples은 출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저지 현상 역시 Kiparsky(1982)는 여타조건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어휘부에는 어휘확인규칙(lexical identity rule)<sup>4</sup>과 (10)과 같은 규칙적인 복수 어미 첨가규칙이 있다.

(10)  $\emptyset \rightarrow /z/ / [X \_ ]_{\text{Noun} + \text{Plural}}$

cattle과 people은 각각 어휘부에 [cattle]<sub>Noun + Plural</sub>과 [people]<sub>Noun + Plural</sub>로 등재되어 있다. 이들은 어휘확인규칙에 의해 그 자체로서 (10)을 적정 포괄(proper inclusion)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어휘확인규칙은 어휘항목을 하나의 규칙으로 보며 하나의 어휘항목은 정의상 단 하나의 어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특수한 종류의 규칙이 된다.(Spencer, 1991:169) 따라서 어휘확인규칙과 (10)의 규칙적인 복수어미 첨가 규칙이 맞설 경우 여타조건에 의해 어휘확인규칙이 우선권을 갖게 되어 cattle과 people에 규칙 (10)이 적용되지 않아 \*cattles와 \*peoples과 같은 형태는 출현하지 않게 된다.

결국, 형태론의 저지 현상에 있어 여타조건은 어휘확인규칙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도 여타조건은 특수한 규칙과 일반적인 규칙이 경쟁할 경우 좀더 특수한 규칙이 좀더 일반적인 규칙을 봉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 2.3 통사론과 여타조건

우선 도출의 과정에 있는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 (11) a. [<sub>IP</sub> seems that [<sub>IP</sub> John is nice]]  
 b. [<sub>IP</sub> John<sub>i</sub> seems that [<sub>IP</sub> t<sub>i</sub> is nice]]  
 -Collins(2001:57)에서 재인용

위 사례는 내포문에 기저생성된 John이 모문으로 이동하는 도출을 담은 것인데, 도출의 결과는 "\*John seems that is nice"와 같이 비문이 된다. 따라서 문법은 이러한 도출을 허용하지 않도록

여타조건이 타당성 및 독립성을 주장하였다.

4 이 규칙은 모든 어휘항목을 하나의 규칙으로 간주한다는 것인데, 비유컨대 창고에서 하나의 물건을 꺼낼 경우 책임자에게 출고증을 받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비록 어휘항목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휘부 조작이 어휘항목의 자질명세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규칙이다. -전상범(1995:221) 참조.

기술되어야 한다. 이에 Collins(2001:57)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제안한다.

(12) If it is possible for an operation to apply, then it must apply.

이는 소위 ASAP(As soon as possible) 원리라고 일컬어지는데,<sup>5</sup> (11a)에서 John의 격자질은 내포문의 Infl과의 격 점검 관계에 돌입하였을 때 즉시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점검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11b)에서처럼 모문에서 점검된다면 그것은 비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는 일면 Chomsky(1993)가 제안한 '지연원리(Procrastinate)'와 상치되는 듯한 면모를 지닌다. 즉, 가급적 조작을 뒤로 미루라는 것이 지연원리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면 ASAP는 조작이 적용될 수 있는 그때 즉시 조작을 적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도출의 합치를 위해서는 지연원리를 위반할 수 있다는 Chomsky(1995)의 최후수단(last resort) 원리의 기본 정신과도 일치한다.

ASAP 원리가 지연원리에 우선한다는 사실은 통사부에서도 여타조건이 작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도출의 어떤 단계에서 어떠한 조작  $\alpha$ 가 적용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보다 특수한 경우이며 전자는 후자를 적정 포괄한다. 따라서 문법이 이를 요구한다면 이를 통해 통사부에서도 여타조건이 기본 정신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ASAP 원리와 지연원리와 맞설 경우 여타조건은 전자에게 우선권을 보장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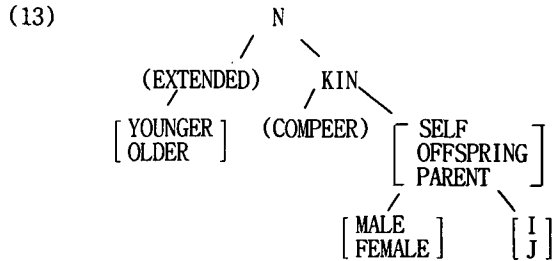
## 2.4 어휘의미론과 여타조건

Gruber(1973)는 부시맨 언어의 일종인 #H6a어의 친족 어휘에 관한 어휘의미론적 연구이다. 이 논의는 대상 언어의 친족 어휘들이 가진 의미 자질을 분석하고 그러한 의미 자질들 간의 계층을 (13)과 같이 제시한다.(p.440)<sup>7</sup>

5 이는 Chomsky(1999:12)가 제안한 극대화 원리(Maximize matching effects)와 흡사하다.

6 이와 같은 설명은 통사부에 최후수단 원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최후수단(원리)은 통사부에서의 여타조건으로 재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7 의미 자질 수형도에서 ' [ ] '로 되어 있는 자질들과 ( )로 되어 있는 자질들의 위상이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 전자는 필수적인 자질이고 후자는 수의적인 자질이다. 이는 다음에 친족 용어 어휘화에서의 이접적 원리의 설명에서 중요하게 인용된다. 자세한 설명은 Gruber(438-440)를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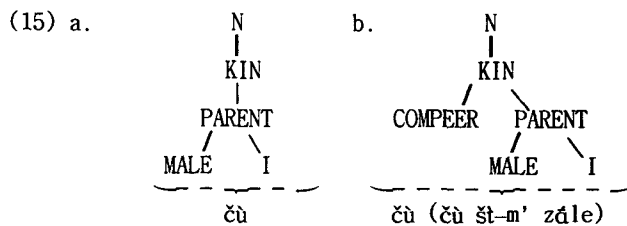


이 의미 자질 수형도는 대상 언어의 친족 어휘들 간의 의미적 상관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해 친족 개념의 어휘화(lexicalization)에 있어 일종의 이접 원리(disjunctive principle or ordering)가 작용하고 있음을 Gruber(1973)는 밝혀내었다. 즉, 임의의 의미 자질군이 하나의 어휘로 실현될 때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어휘 항목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어휘항목의 적용에 의해 항상 차단된다"는 것이다.(Gruber, 1973:438) 그가 제시한 친족 어휘 간의 이접적인 어휘쌍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다음과 같다.

(14) *Disjunction S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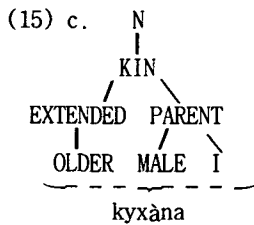
čù : kyxóō : kyxàna : čù-≠gào  
 gyè : kyxóō : gyè-≠gào  
 -Gruber(1973:441)

(14)에서 왼쪽에 있는 어휘항목들은 오른쪽에 있는 어휘항목들에 의해 이접적으로 한정지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čù는 "아버지"나 "상대적 연령이 명세화되지 않은 아버지의 사촌들(št-m' zǎle: cross-cusin)"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 이때 각각의 의미 자질 수형도를 보이면 (5a), (5b)와 같다.



그러나 "아버지"의 형제, 즉 "아버지의 아우, 아버지의 형, 아버지의 여동생, 아버지의 누나"를 가리킬 때에는 각각 "čù-≠gào, kyxàna, kyxóō, kyxóō"와 같은 다른 어휘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čù는 이 경우에 아버지의 형제들의 개념을 어휘화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못한다.

Gruber(1973)은 이러한 어휘화의 차이점의 원인을 각각의 친족 개념들이 가진 의미자질 집합의 포함관계와 이접 원리에서 찾는다. 예컨대, çù가 "아버지"나 "상대적 연령이 명세되지 않은 아버지의 사촌들(št-m' zǎle: cross-cusin)"을 모두 어휘화할 수 있는 이유는 (5a)가 (5b)를 적정 포괄하기 때문이다. 이때 "COMPEER"라는 의미 자질은 수의적인 자질이므로 무시된다. 반면 예컨대, çù가 kyxàna 대신 사용될 수 없는 이유는 (5c)에서의 "OLDER"이라는 자질은 필수적인 자질이므로 무시될 수 없고 따라서 (5a)는 (5c)를 포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친족 개념을 나타내는 의미 자질의 집합 (5a)와 (5c)는 이접적 관계에 놓이며, 전자는 후자를 적정 포괄할 수 없으므로 전자를 구현하는 기본 어휘 çù가 후자를 위해서 사용될 수는 없고 별도의 독립된 어휘 kyxàna가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휘의미론의 측면에서도 여타조건이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용론에서 관찰되는 여타조건 of 모습을 논의하기로 한다.

### 2.5 화용론과 여타조건

Searle의 적정 조건(felicity)<sup>8</sup>과 Grice(1975)의 대화 격률(conversational maxims)은 화용론의 주요 주제이다. 특히 후자의 이론은 협동원칙(cooperative principle)이라는 일반원칙을 토대로 다시 '양(quanty), 질(quality), 관련성(relation), 양태(manner)' 등의 세부 격률로 분류된다.

Horn(1984:12-13)은 이러한 세분된 대화격률이 결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압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

(16) a. **The Q-Principle** (Hearer-Oriented):

Make your contribution sufficient;

Say as much as you can: i.e. Do not provide a statement that is informationally weaker than your knowledge of the world allows, bearing the maxim of Quality and R-principle in mind.

b. **The R-Principle** (Speaker-Oriented):

8 적정 조건이란 대화상의 특정 상황 안에서 특정 화자의 믿음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주어진 문의 적절성을 판별하는 조건이다. -이익환(1995:244) 참조.

Make your contribution necessary;

Say no more than you must: i.e. Produce the minimal linguistic information sufficient to achieve your communication ends, bearing the Q-principle in mind.

그리고 Horn(1984:22)은 이 두 원리의 상관 관계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17) The Division of Pragmatic Labor

- a. The R-principle induce a stereotype interpretation: The unmarked expression E tends to become associated (by use or -- through conventionalization -- by message) with unmarked situation s, representing a stereotype or salient member of the extension of E / E'
- b. The marked alternative E' Q-implicates the complement of s with respect to the original extension of E / E'.

한편, Levinson(1987:409)은 이 두 원리에 있어 (17b)가 (17a)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즉, 동일 대상에 Q-원리가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R-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9</sup>

이들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R-원리와 Q-원리가 이접적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17)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R-원리에 비해 Q-원리가 보다 특수한 해석을 유도하는 원리임에 유의해야 한다. Levinson(1987)의 지적이 옳은 것이라면, 보다 특수한 원리인 Q-원리가 그렇지 않은 R-원리에 우선해야 하므로 이는 결국 여타조건외의 기본 정신과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도록 한다.

(18) I'm meeting a woman tonight. -Mey(1993:78)

이상의 논의대로라면 먼저 Q-원리가 적용되어 (18)에서의 'a woman'은 'I'의 부인은 결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Mey(1993:79)의 지적대로 (18)의 발화에 대한 청자의 화답은 대체로 'Oh? who is she?'가 될 것이므로 이 해석은 옳은 것으로 판명된다.

한편, 다음의 예는 (18)과 구문은 비슷하지만 양상이 정반대이다.

(19) I cut a finger yesterday. -Mey(1993:78)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먼저 Q-원리가 적용되면 (19)에서 'a finger'는 'I'의 것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I cut my finger yesterday'와 같은 대당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좀더 자세히 나타낼 수 있는 또다른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에서처럼 부정관사 'a'를 사용한 것은 분명

9 그는 Q-원리와 R-원리(그의 체계에서는 I-원리) 외에도 M(anner)-원리를 추가하여 논의하고 있다.



'I'가 아닌 '타인'의 손가락을 가리키고자 하였다는 것이 Q-원리에 의한 (19)의 해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Mey(1993:79)의 지적대로 (19)에 대한 청자의 화답이 보통 'That's too bad'와 같이 나타날 것임에 비추어 볼 때에 이상한 해석인 것으로 판명된다. 이 경우엔 Q-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R-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엔 무슨 이유로 Q-원리가 배제되고 대신 R-원리가 선택되는가?

Q-원리에 의한 (19)의 해석은 '내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어제 잘랐다'와 같은 것이다. 반면 R-원리에 의한 (19)의 해석은 '나는 어제 손가락이 잘렸다'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Mey(1993:79)나 김선희(1993:30)가 이미 지적한 대로 'I'가 야쿠자나 마피아와 같은 갱단의 일원일 경우 그러한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닌 보통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일을 생각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에 대한 Q-원리에 의한 해석은 거부되며, 그로 인해 R-원리에 의한 (19)의 해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 3. 언어의 공모성으로서의 여타조건

이상으로 우리는 여타조건의 기본 개념과 함께, 그것이 음운론의 주장세 부여 규칙에서뿐만 아니라 형태론의 저지 현상과 통사론의 최후수단 원리, 의미론에서의 어휘화 문제, 화용론에서의 대화 격률에서 두루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각 부문에서 관찰된 이러한 언어 현상들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따져 보면 기능적으로는 모두 여타조건의 기본 속성을 여실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국 1장에서 살펴본 언어의 공모성의 정의와 부합하며, 따라서 여타조건을 범부문적으로 존재하는 언어의 공모성의 한 실체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이러한 관찰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Kiparsky(1973, 1982)는 음운론에서 여타조건의 가능성을 발견한 후 그것을 형태론에도 도입하였으며, Collins(2001)는 통사론의 ASAP 원리를 Gruber(1973)의 논의와 비교해 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 논의들은 문법 이론의 부문들 간의 부분적인 비교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며, 여타조건을 언어의 공모성이라는 입장에서 논의하지는 못했다. 이에 본고의 논의는 여타조건이 음운론으로부터 화용론에 이르기까지 문법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법의 단일 부문 내에서 공모성을 논의한 것을 뛰어넘어 범부문적으로도 언어의 공모성이 실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문법 이론의 거시적 기술에서 이러한 언어의 공모성을 어떻게 기술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츄스키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통사이론에서의 최소주의 가설을 펴고 있다. 80년대까지 통사부의 잡다한 규칙들을 Move-a로 단일화시키고 이제는 통사부의 제원리들을 경제성 원리라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그에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경제성 원리가 문법의 다른 부문, 예컨대 음운론이나 형태론, 의미론이나 화용론에서도 유효한가?"라고. 이 질문에 대해 그는 "그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라 생각된다. 문법의 각 부문은 독자적인 규칙과 원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문법의 제 분과들은 적어도 여타조건이라는 언어의 공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통념과 같이 문법의 각 부문에서 독립적인 규칙이나 원리의 체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제부문을 관통하는 원리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sup>10</sup>

과연 여타조건외의 광범위한 분포가 다만 우연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좀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여타조건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공모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만일 여타조건을 비롯하여 다른 몇 가지의 공모성이 발견될 경우, 이러한 범부문적 원리들은 거시적인 문법 이론에서 어떻게 기술해 주어야 하는지도 앞으로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강명운 역. 1998. 《츨스키 언어학 사전》, 서울: 한신문화사.
- 김선희. 1993. Division of labor between grammar and pragmatics: the distribution and interpretation of anaphora. Yale대학 박사학위논문.
- 김진형. 1996. 품사전환에서의 의미변화, 《언어》 21-4,
- 안상철. 1998. 《형태론》, 서울: 민음사.
- 양동휘. 2000. 《최소주의 통사론》, 미출간원고.
- 이기문·김진우·이상익. 1991. 《국어음운론》, 서울: 학연사.
- 이익환. 1995. 《의미론 개론》(수정 증보판), 서울: 한신문화사.
- 전상범. 1980. 《생성음운론》, 서울: 탑출판사.
- 전상범. 1995. 《형태론》, 서울: 한신문화사.
- 조성식. 1990. 《영어학사전》, 서울: 신아사.
-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Hale & S.J.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10 Uriagerecka(1998)는 최소주의 이론에서 제안된 "어순공리"의 모태를 자연과학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언어학과 자연과학의 일관성에 대한 탐구가 가능하다면 언어 이론의 제 분과간의 일관된 원리 탐구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 Chomsky, N. 1999. Derivation by Phas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 Chomsky, N. & M.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York: Harper & Row.
- Collins, C. 2001. Economy Conditions in Syntax. In Baltin, M. and C. Collins (eds), *The handbook of Contentemporary Syntactic Theory*.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 Grice, P.H.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D.Davidson & G.Harman (eds), *The logic of grammar*. Encino, Cal: Dickenson Publishing Co.
- Gruber, J.S. 1973. #Hóã kinship terms. *Linguistic Inquiry* 4.
- Horn, L.R. 1984. Toward a new taxonomy for pragmatic inference: Q-based and R-based implicature. In D.Schiffrin (eds), *Georgetown Round Table on Language and Linguistics 1984*,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Kisseberth, C.W. 1970. On the functional unity of phonological rules, *Linguistic Inquiry* 1.
- Kiparsky, P. 1973. 'Elsewhere' in phonology. In Anderson, S. and P. Kiparsky (eds),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Kiparsky, P. 1982. From cyclic phonology to lexical phonology. In van der Hulst and N.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art II. Dordrecht: Foris.
- Levinson, S. 1987. Pragmatics and the grammar of anaphora: a partial pragmatic reduction of binding and control phenomena. *Journal of Linguistics* 23.
- Lightfoot, A. 1999. *The development of Language: acquisition, change, and evolution*.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 Mey, J.L. 1993. *Pragmat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 Spencer, A. 1991. *Morphological Theory: an Introduction to Morphology in Generative Grammar*. Oxford: Blackwell. (전상범·김영석·김진형 역(1999), 《형태론》, 서울: 한신문화사)
- Uriagerecka, J. 1998. *Rhyme and Reason*. Cambridge, MA.: MIT Press.